

【 해외금융 뉴스: 세계 】

세계경기 회복세 지속 전망

- IMF는 신흥개도국의 경기회복, 선진국의 경기회복 기대감 상승, 금융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세계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힘.
 - 세계경기는 1월의 수정전망과 큰 차이 없이 금년에 4.4% 성장하고 내년에 4.5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 - 선진국은 금융위기로부터 회복되는 단계로서 내년에 2.5% 성장하며, 신흥개도국은 이미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여 내년에 6.5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-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은 세계경기 회복세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되었으나 경기회복의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는 보임.
 -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은 경기회복에 힘입은 수요증대로 급등하는 추세이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작황 호조와 가격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공급 증가로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.
 - 국제유가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으로 급등했으나 생산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위협은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.
 - 그 밖에 일본 대지진으로 일본경기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전력부족과 방사능 오염 사태는 수개월 안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.
- 또한 IMF는 신흥개도국 경기회복세의 과열 조짐과 선진국의 재정적자 과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.
 - 신흥개도국은 경기과열과 물가급등 방지를 위해 경기확장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며 선진국은 사회보장, 세제 개혁 등을 통해 재정지출 감소와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함.
 - 특히, 유럽은 경기회복세를 방해하지 않고 은행시스템이 원상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긴축정책 시행을 서두르지 말아야 하며 국제시장의 변동성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 낮은 비용의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은행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.

(Financial Times 4/13, IMF 4/13)